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2025년 6월 29일 (제2140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토/일(8am~4p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 국 학 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 심 단 체	레지오마리애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 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 사	주 일 미 사	오전 8시 / 11시
	평 일 미 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 ·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 사	고 해 성 사	미사 30분 전
	병 자 성 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 배 성 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사도행전 12,1-11

화 답 송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4,6-8.17-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 음 마태오 16,13-19

영성체송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가]	8시	입당	291	봉헌	512	성체	154	파견	200
	11시	입당	291	봉헌	217	성체	174, 187	파견	55

사도 대축일	6월 29일 (주일)		7월 1일(화)	7월 2일(수)	7월 3일(목)	7월 4일(금)	7월 5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황혜정 데레사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꾸리아
독 서	강신호 요한 이명란 아네스	김학철 요한 황선희 세실리아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꾸리아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된 베드로와 신앙의 내용을 밝히 깨우쳐 준 바오로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입니다. 우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를 본받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합시다.

■ 7월 성경 통독
- 테살로니카 1서 4,1 – 5,28

■ 성시간 : 7월 3일(목) : 저녁미사 후

■ 7월5일 토요일 미사 전례 : 꾸리아
- 꾸리아 월례회의 : 7/5(토) 9시, 교육관 106호

■ 성인 예비신자 교리교육 안내
- 교리시작 일시 : 7월10일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 교리 공부 있습니다.
- 신청 문의: 사무실

■ 청년 예비신자교리 및 재교육
- 일시: 6월 29일(일), 대건관 4호
- 문영균 수사님

■ 본당 BBQ 파티
- 일시 : 7월5일(토), 오전 11시 미사 후
- 장소 : 본당 친교실

7월 5일은 본당 주보 성인이신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 미서중부 남성 제16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2025년 7월 24일 ~ 7월 27일
장소 : St. Clare's Retreat
대상 : 모든 남성 신자
문의 및 신청 : 울뜨레야 간사 (510-688-0155)

■ 제29차 북가주 성령대회
- 일 시 : 2025년 8월 9일 (토), 오전 8:30 - 오후 6:00
- 장 소 :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1523 McLaughlin Ave, San Jose, CA 95122
- 신청문의 : 본당 성령 기도회, - 참가비: $30

■ 본당 한국학교 개강 안내
- 가을학기 시작 : 9월 6일 토요일 10시
- 1년간 수업료 $350

(한 가정에서 두 명의 자녀를 등록할 경우, 두 번째 자녀의 등록비는 $320입니다)
- 등록신청: 성 김대건 한국학교 이메일 참조 (standrewkimks@gmail.com)

■ 꾸리아 야유회 : 7월20일(일) 교중 미사후, 사제관 정원
- 일시 : 7월20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 사제관 정원
- 레지오 단원과 협조단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친선 탁구대회
- SF 성마이클 성당 탁구팀과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 일시 : 8월10일 오후 2시
- 장소 : 본당 친교실

■ 모임 및 회의
- 리치몬/버클리 : 6월29일 교육관 106호
- 사목회 : 7월6일 교육관 106호
- 구역장회 : 7월6일 교육관 106호
- 하상회 총회 : 7월6일 교육관 201호
- 성령대회 준비 찬미 연습 : 7월12일, 19일, 다목적 실

■ 연도안내
- 고 한동설 안젤로 영혼을 위한 1주기 연도가 8시 미사, 교중미사 끝에 있습니다.

■ 밥나눔 안내
- 고 한동설안젤로 1주기 연도후 한계순안젤라 가정에서 무료티켓 5장을 드립니다.

-메뉴;콩국수(이베로니카),고등어조림(이마트로나),소고기미역국(이요안나),누룽지탕(이아네스),불고기(송아네스),돈까스(밥나눔회),떡만둣국(이파트리샤),바람떡(차리디아),찹쌀케이크(권마가렛),과일/아이스크림(학보무회)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마리아,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정연중비오,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장민우, 김옥자마리아, 유낙양베로니카,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쥴리율리안나, 조지현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조진행바실리오, 김혜숙아네스

■ 황금빛 인생 여행 안내
옵션 1), **-날짜 : 9월9일-10일 (1박 2일)**
- 장소 : 요세미티 국립 공원

(혼자 보행이 가능하신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10불, 70세 이하-20불
-호텔방 일인 사용- 호텔비용 전액 지불
***마감: 7월 13일(일)까지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옵셥 2), - 날짜 : 9월 12일
- 장소 : 사무엘 팍
** 두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

■ 성당 내 안전 유의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주차장 페인트 작업 봉사해 주신 대건회에 감사드립니다
- 여성의 날 행사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베드로 (6/29), - 바오로 (6/29), - 에스터 (7/1)
- 토마스 (7/3), - 대건 안드레아 (7/5)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알아보는 두 사도의 생애

6월 29일은 전례력으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다. 두 사도는 교회의 본질과 특징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다. 베드로 사도는 일치의 상징이다. 이를 위해 그에게 수위권이 부여되면서 교회의 반석으로 자리매김한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교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진보와 개방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뛰어난 업적을 펼친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 흙수저 시몬(베드로), 금수저 사울(바오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 두 사도의 출생과 성장과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접촉이 잦았던 갈릴래아 벳사이다 지방에서 어부 요한의 아들로 태어나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어부로 일했다. 결혼한 후에는 카파르나움으로 이사해 장모를 모시고 살았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요한 세례자를 따르는 제자였다. 군중들을 가르치던 예수는 어부 시몬의 배에 올라타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른다. 시몬을 유심히 본 예수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불렀다. 베드로는 훗날 실제로 교회의 반석이 되지만 예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지극히 단순하고 가난한 어부였다.
반면 바오로는 열심한 정통 유다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사이였고, 그리스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운 대도시 킬리기아의 수도 '타르수스'라는 지역에서 자랐다. 또 로마 시민권을 태생부터 갖고 있었다. 그가 지녔던 유다식 이름 사울과 로마-그리스식 이름 바오로는 이렇게 화려한 배경에 기인한다. 아울러 바오로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중해의 여러 도시들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이런 문화배경은 큰 도움이 됐다.

■ 겁쟁이 베드로, 박해자 바오로

확연히 차이나는 두 사도의 출생과 성장배경은 각기 다른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주 나타난다. 예수와의 첫 만남부터 그러하다. 배에 올라탄 예수의 지시로 많은 물고기를 잡자 베드로는 기뻐하기보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말한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루카 5,8) 이런 그에게 예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타이르며 첫 제자로 부른다.또 스승의 부름에 물 위로 발을 옮겼지만 두려움에 싸인 베드로는 허우적대고, 이 모습을 보며 예수는 안타까워하기도 한다.이후 절정의 순간인 예수가 수난당할 때도 두려운 마음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자신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겁 많았던 베드로와 달리 어려서부터 유다인으로서 철저한 종교교육을 받았던 바오로는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고 고백한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필리 3,6) 때문에 바오로는 율법을 비판한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다. 나아가 율법 신봉자였던 바오로는 율법과 성전에 비판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다.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사도 6,11)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사도 8,1) 이와 같이 바오로는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 베드로의 눈물, 바오로의 회심

이렇듯 겁 많던 베드로와 악랄했던 바오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을까.
우유부단하고 소신 없는 모습으로 비춰진 베드로는 예수의 인내와 가르침 속에서 성장한다. 아울러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마태 16,15)는 예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마태 16,16)라고 고백한다.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건넨다. 이후 베드로는 수난당하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모습을 자책하며 통곡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의 양들을 맡긴다.
반면 바오로는 극적인 체험을 통해 단번에 회심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한 예수를 만나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급변했고 그의 신념과 신학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누구보다 열심한 바리사이파 유다인이었던 바오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쓰레기로 여겼다.(필리 3,8)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체험은 마침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갈라 2,20)이라고 표현하기에 이른다.

■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한 두 사도는 네로 황제(54~68)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에 순교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바오로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이 같은 해, 같은 날 순교했는지에 대한 고증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3세기 중반부터 6월 29일에 두 사도를 함께 기념하기 시작했다.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지녔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는 예수의 보호 아래 온 생애를 교회에 헌신하며 순교에까지 이르렀다. 오늘날 두 사도는 신앙의 모범이자 선교의 표상으로서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가톨릭 신문]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8명	160명	198명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감사 헌금	황금빛	선교	빈첸시오	성소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전윤자(7-8) ,정기환(7-12), 이상훈(5-6), 최정안(7-8), 김광석(7-12), 박덕희(6-10), 양일규(5-6), 전문자(6), 최삼남(6), 지영남(5-8), 임석호(6-7)						이병열요셉,루시아 가정 심연자	김문환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6/29(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6/29(일)	생	김명환 안드레아	심데레사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Jia Shay	양수산나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Roman Amadei	양수산나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Julian Amadei	양수산나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김세록제랄드 가정	이베로니카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전윤자 데레사	조바실리오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생	이명국 바오로	염파트리샤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이명국 바오로	이명란 아네스
	연	김마르코	가족		생	김문환 베드로	염파트리샤
	연	박영자 클라라	이수나 유스티나		생	김문환 베드로	이명란 아네스
	연	박종섭 요셉/정율리안나	가족		생	김경년 베드로	이명란 아네스
	연	김정희 율리엣다	가족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전바오로	전데레사	7/1(화)	연	최정자 젬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전베드로	전데레사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박진영 베드로	박덕희 마리아		연	김영자 세실리아	장철호/송아네스
	연	안승설 바오로	박헬레나		연	한문석 임마누엘	가족
	연	양복남 베드로	박헬레나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연	김창훈	이명란 아네스		생	이경희 미카엘라	이요셉/마트로나
	연	김재성 제이슨	김케넷 가족				
	연	부모님	신긍진 가족	7/2(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김철수 요셉	신긍진 가족		연	한문석 임마누엘	가족
	연	한동설 안젤로	유인웅 다윗		생	김명환 안드레아	심데레사
	연	박영자 글라라	양수산나				
	연	신율리엣다/빈첸시오	양수산나	7/3(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한문석 임마누엘	양수산나		연	이용 요세	이소지 마리나
	연	한문석 임마누엘	임유지 비비아나		연	한동설 안젤로	가족
	연	한문석 임마누엘	육아오스딩/아가다		생	이영문 루씨아	김엘리사벳
	연	한문석 임마누엘	가족		생	이병열요셉 가정	김엘리사벳
	연	한문석 임마누엘	이베로니카		생	전문자 수산나	유리디아
	연	홍일영 리차드	가족		생	이정우	유리디아
	연	홍일영 리차드	육아오스딩		생	정한나	유리디아
	연	홍일영 리차드	원광희 프란치스코		생	김다솜 아델라	유리디아
					생	이영 크리스티나	이욱경 글라라
6/29(일)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이준 오비	이욱경 글라라
	생	장민우	전데레사		생	이라일라	이욱경 글라라
	생	이바오로/파트리샤	전데레사		생	이연 베드로	이욱경 글라라
	생	김만옥 요안나	윤성진루카/윤루시아				
	생	이마이라	이명란 아네스	7/4(금)	생	한윤정 아가다	최영자 세레나
	생	이에스터	김엘리사벳				
	생	강윤희 보나	순배수산나	7/5(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권영현바실리오/글라라 가정	김영선 안젤라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이쥴리 율리아나	김영선 안젤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천혜수 아네스	김영선 안젤라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김상실 가를로	김영선 안젤라		연	본당 선종 연령	선종 봉사회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김상실 가를로		연	이남희 세레나	이바오로 가정
	생	이명련 파트리샤	김상실 가를로		연	박진영 베드로	박덕희 마리아
	생	이명란 아네스	김상실 가를로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본당 봉사자들	김상실 가를로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조에드워드	조분도		생	이한진 미카엘	이바오로 가정
	생	조소피아	조분도		생	이명국 바오로 가정	이바오로 가정
	생	황성국 베드로	황선희 세실리아		생	김예빈 글라라	염파트리샤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생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

폴김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